전남도, 무안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만든다

진입로 공사 10년만에 올 완공, 국제선 추가 유치 활성화 전력
항공특화산단 조성 지원, 군공항 이전문제도 중재·조정 나서

전남도가 무안공항 진입로 공사를 착공 10년만인 올해 완공하고,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무안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54만명을 돌파한 이용객도 추가 국제노선 유치를 통해 올해 100만명을 넘어서도록 하는 등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정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중재와 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26일 '무안군민과의 대화'에서 "무안을 항공·물류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관점에서 국토교통부가 조건으로 내건 민간기업과의 MOA(투자합의각서) 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남도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가 국토부로부터 항공정비(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 산업단지로 지정받도록 전남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이다. 무안군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오는 2020년까지 368억원을 들여 무안공항 인근 34만9941㎡에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으나, 국토부가 전남도내 산단 미분양 문제를 지적하며 항공정비산단 지정을 2차례 반려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신산업과 관광산업을 민선 7기 역점산업으로 선정한 김 지사가 "2021년 광주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2025년 무안공항 경유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광주시와 군공항 이전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2일 군공항 이전과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첫 면담에 나서기도 한 김 지사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가적인 문제로 중앙정부, 지자체가 따로 없다"며 "정부와 (이전)해당 지자체가 원만한 협의를 하도록 조정·중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설명회나 토론회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며, 지자체 역시 반대인지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인지 확실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전)해당 지자체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협의는 사전에 논의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제를 뒀다.

전남도는 지난 2010년 사업비 881억원 전액을 도비로 해 착공한 무안공항 진입도로(연장 3.61km)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올해 마무리하고, 무안공항 활주로 400m 연장도 올해 설계에 착수하는 등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무안공항은 지난해 국내선 제주 1개 노선, 국제선 정기 12개 노선·부정기 1개 노선 등을 운항해 지난 2007년 개항 이후 최대인 54만3000명이 이용했다.

김 지사는 "올해 100만명을 목표로 꾸준히 국제노선을 유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중장거리 노선은 저가항공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무안군이 요청한 노을길 해안 침식 방지 사업비 5억원에 대한 지원과 자연친화형 수산종자 생산기지 구축, 수산물 위판장 건립, 운남면 신월항 어촌뉴딜 300 사업 등 무안 연관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묵념하는 천안함 46용사 유가족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9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이 추모비에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된다

전남도, 삼일자원 비축산단 등 2곳…의견 수렴 진행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여수국가산단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된다.

전남도는 26일 여수시 요청에 따라 여수국가산단과 삼일자원 비축산단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대기오염 배출 등을 엄격히 관리키로 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2013년부터 최근 6년 간 산단 악취관련 민원만 148차례나 발생한데다, 지난해 11월 산단 악취가 여수 전 지역에서 나타난 점 등을 들어 전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여수시가 요청한 '악취관리지역' 대상지는 여수국가산단(3255만㎡)과 삼일자원 비축 산단(415만6000㎡) 등 2곳이다.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전체 298개 입주업체 중 석유화학업종(악취배출사업장)만 45.5%인 121곳에 이르면서 다량의 악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울산 석유화학단지(2005년), 서산 석유화학단지(2006년)와는 달리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악취관리'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남에서는 여수 화양농공단지(9만6000㎡)가 처음 '악취관리지역'(2013년)으로 지정된 바 있어 2곳이 추가되면 여수에서만 '악취관리지역' 3곳이 지정·관리되는 셈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악취배출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신고하고, 여수시에 악취 저감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또 관련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사용중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흑산공항 환경부 국립공원위에 재상정 추진"

김영록지사 '신안군민과 대화'
위원 8명 임기 만료 4월 이후

전남도가 흑산공항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안건 재상정에 나선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가 두 차례 심의를 보류된 뒤 심의 중단을 발표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신안군민과의 대화'에서 "흑산공항은 해양영토 수호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지역민의 교통 불편 해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착공해야 하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를 설득해 심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에서 통과되면 조기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 흑산공항에 부정적인 민간위원 15명 가운데 8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재상정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흑산공항은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공원자연환경지구에 1833억원의 예산으로 활주로 1.2km를 설치해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하는 소규모 공항이다.

이날 김 지사는 비금~도초, 도초~하의, 신의~장산 등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신안군 해저유물 일부 전시 박물관 추진, 열악한 섬 교통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또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다기능 수산물 위판장 건립, 송공항 여객 터미널 신축, 무감염 새우 종자배양장 건립,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국도 77호선 개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등 신안군 관련 추진중인 사업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민 영화관람 횟수 5.34회…전국 두번째

전남은 평균보다 낮은 2.59회

광주 시민의 영화관람 횟수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전남 도민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전남연구원이 내놓은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인포그래픽 제24호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영화관람 횟수는 광주 5.34회, 전남 2.59회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은 4.18회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관람횟수가 5.80회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두 번째였다. 전남의 관람횟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서울 관람횟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은 17개 시도 중 경북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관람횟수를 보였으며, 연 3회 미만은 전남과 경북뿐이다.

영화산업 전체 매출의 지역별 점유율은 광주 3.5%, 전남 2%였으며, 서울이 27.2%로 가장 높았다.

광주와 전남은 스크린 수에서도 격차가 컸다. 광주 스크린 수는 2000년 27개에서 2010년 71개 그리고 2018년 128개로 증가했으며, 이 기간 4.7배 늘어났다.

전남 스크린 수는 2000년 15개, 2010년 53개, 2018년 102개로 많아졌으며 이 기간 6.8배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4.1배)을 크게 웃돌았다.

연구원은 광주와 전남의 지역적 특성으로 영화관람 접근도에 차이가 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광주 비멀티플렉스 극장은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으로 두 곳이 있으며, 전남의 작은영화관은 현재 곡성·고흥·화순·장흥·완도·진도 등 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작은영화관 운영을 계획 중인 지자체는 9곳으로 담양·보성·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신안이다. 상설영화관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6곳으로,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구례는 상설영화관을 갖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LH 광주전남본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업무협약

광주시와 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힘을 모은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백인철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26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공공임대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광주시와 LH, 도시공사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총괄 지원하며, 아동 모집 시 우선 배정 등 단지 내 입주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협조한다.

LH와 도시공사는 300가구 이상 신규 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존 임대주택 단지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입주자 동의 등의 절차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